



## 보다 나은 건축을 위한 과제들

Subjects for the Better Architecture

- 시장개방과 우리 건축의 문제점들 -

李 鶴 榮\*

Lee, Hak Young

### Abstract

As a matter of fact, the better architecture is very important things to create our generation and culture. Also, construction quality improvement is critical necessary to keep the culture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which must be obtained through the consciousness reform of persons concern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roposal is to provide the basic point for establishing a practical campaign against construction failures.

In this year, we have to remember the facts that's faced on market opening in construction market which is agreed in WTO. The contents of subject are as follows:

- 1) Subconscious reform of technician and projector concerned
- 2) Responsible consciousness of original contractor
- 3) Workmanship of skilled labor
- 4) Reasonable budget and bidding included sub-contractor
- 5) Advanced design and engineering quality
- 6) Certification of consulting engineer

### 1. 부러운 문화유산들

해외의 문화유적을 찾아다니며 참다운 건축을 몸으로 체험하고 최근 돌아와 신문지상에 계속 연재한 바 있는 건축가 김석철 씨는 '96년 12월 30일 紙上에 "천년 건축"이란 시리즈를 끝내면서 절필 소감으로 "천년 건축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첫째는 일상적 수준의 구조적 안전을 넘는 예기치 못할 사태까지를 포괄한 기하학적 완전한 형식을 이룬 건축이었고, 둘째는 대부분의 천년 건축은 그 땅에서 난 재료로 만들어 졌다. 셋째는 예

외 없이 짓고 난 후에도 짓는 정성만한 노력으로 維持, 補修해 온 점이다"라고 하였다.

절대적으로 공감이 가는 피력이며, 건설 신뢰가 땅에 떨어진 오늘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지금도 로마 시내에는 티베르(Tevere)라는 강이 서울의 한강처럼 흐르고 있는데, 그 강 위에는 기원전 62년에 세워졌다는 파브리치오(Fabricio) 다리가 아직도 옛모습 그대로 간직되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되며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교량 수명으로 본다면 2,059년이 된 셈이다.

\* 建築施工技術士, 본회 홍보위원, 극동건설(주)/ ENG. 본부/감리팀 상무이사.

2천년 전에 그들이 어떤 공법과 인력, 장비를 동원 하였는가는 알 수 없으나, 그 구조물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최근 이곳 저곳에서 터지고 있는 건축이나 토목 구조물들의 붕괴나 참사로 인하여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는 우리의 건설환경과 비교하여 볼 때 부럽다기 보다는 오히려 불가사의한 기적과도 같이 느껴진다.

요사이 우리 주변의 많은 문화 선진국들을 둘러 볼 때, 그들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후세의 자손들이 역사적 긍지를 갖고 문화 민족으로 대접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고대 노예문화인 에굽의 피라미드나 로마의 콜로세움을 제외하고도 최근 우리 주변의 건축유산이던져주는 교훈은 크다.

스케일 미를 사랑하는 에펠탑, 심미안(審美眼)을 갖는 룡상의 노트르·담교회, 환경 조화의 명작인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관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금문교, 건축과 토목의 앙상블을 이루는 데임스강의 타워 브리지 등 최근에도 걸작들이 있는 곳에는 예외 없이 많은 관람객들이 憧憬과 讚辭를 아끼지 않고 줄을 잇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 2. 잘못 된 우리의 인식들

우리 건설 및 관련업계가 40여 년 간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병행하여 투자되고,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이나 공법, 자재, 시공기술 등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투자에는 극히 인색하였다. 왜냐하면 투자에 비례하여 반대급부가 적든가, 투자회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에 건설과 그에 관련된 서비스 업종은 마치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양 착각하여, 이제는 몸체만 비대하여져 중병을 앓고 있으니, 부실이란 사회적汚名을 씻을 시간적 여유도 없이 낮뜨거운 부실 공

사의 보도들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것도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되면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착각했던 그 황금 알을 낳는 거위는 제대로 양육도 하지 않고, 궁극적인 황금 알만 거두려 했던 우리 건설인들의 극성과 탐욕스러움에 병들게 했거나, 죽여 버린 꼴이 되어 버렸다.

서울대학교 건축과 김문한 교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결국 부실 공사의 원인은 크게는 정책적인 면, 건설 경영적인 면, 기술의 낙후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부실 공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건축 관련인들이 병들어 가는 거위를 지금이라도 치료하여, 불명예스러운 건축문화를 재창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며,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제언한다.

## 3.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

### 3.1 건축 관련인들의 의식전환

우리의 의식 속에는 선천적으로 내려오는 유전적 의식과 후천적 환경과 교육에 따른 의식이 내재되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건설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인의 부정적 사고 방식을 필자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다음의 의식들은 대부분 건축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하루 빨리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다.

#### ◎배타성

이조의 사색당파에서 시작하여 일제치하, 남북분단까지 내려오면서 형성된 의식으로 간주 되는 바 ((표 1) 참조), 이 배타성의 논리는 당파 싸움에서 보듯이 남인이 하는 일이면 무조건 북인이 이의를 제기 하고, 제사상의 포(脯)가 왼쪽이니 과(果)가



하듯”, 대충 건성으로 해치우려는 정신자세가 현상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매사를 대충 해치우는 버릇이 건축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는 바, 일본의 정신적 문화적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하루 빨리 원칙을 준수하는 의식으로 轉換 되어야 할 것이다.

### ◎ 개인주의

보는 관점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방이후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우선 경쟁자를 물리쳐야 입시의 관문을 뚫을 수 있고, 상대를 따돌려야 입사할 수 있는 풍토와 5.16 이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나만이 살아야 되겠다는 이기심이 우리 몸 속에 배어 있는 것 같다.

농경사회에서 보던 협동심은 이미 사라졌고, 상업화, 공업화, 도시화 등의 개발이 될수록 개인주의가 만연되고, 앞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 오늘의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러한 의식들로 팽배하여 긍정적 이기 보다는 부정적 요소로 번져가고 있는 의식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규태 선생은 “한국인의 의식구조”란 저서에서 “한국인은 자신의 능력을 집단의 능력으로 투사하고 절충시킬 줄 모르며, 자신의 이해나 의사를 집단의 이해나 의사를 위해 희생시킬 줄 모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축문화의 창조는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기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먼 안목과 통찰력을 갖고 각자의 업무에 집단을 위하여 협동하고, 희생 할 때만이 가능하고, 이러한 공동의식과 사명감을 건축 관련자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실천할 때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 ◎ 3D의 기피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문화 생활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현상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양적 성장은

3D를 묵묵히 견디고 일한 종사자들이 없었으면 불가능 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기피하는 현상은 70년대 후반부터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나,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조들의 선비사상이나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적 선비의식의潛在한 결과로 보여지며, 기술 선진국들을 볼 때 화이트 칼라보다는 블루 칼라가 대접받는 사회이고, 그러한 기술과 기능 우위의 사회에서 부실 건축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는 드문 것 같다.

후기 산업사회(Post Industry Society)를 맞고 있는 중진국 이상의 국가들은 이러한 3D의 기피 현상으로 많은 산업과 장비들이 자동화로 대체되어야 할 기로에 놓여있고,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잘 조화되어 보다 나은 건축 문화를 창조하는 데 모든 중지를 모아야 한다.

### ◎ 준법정신의 결여

법을 잘 지키면 못살고 탈세하고 범망을 잘 피하면 잘 산다는 의식이 어느 사이 우리 주변에서 상식화 되어가고 있는 듯 싶다. 이러한 의식도 필자의 견해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우리 국민들은 抵抗하고 離脫하고 脫法하는 것이 반일 애국하는 정신으로 심겨 졌으니, 소위 식민지 근성이 아직 잔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 배경은 역시 일본 식민지 통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해방 이후 일부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는 데 솔선 수범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를 자행하였으니 국민들의 눈에는 정치 불신의 싹이 트고, 遵法정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장애요인이 되며, 우리 건설현장에서 지키려는 의지보다는 설계나 시방서의 규정을 피해 보려는 속셈이 없지 않다. 거기에 타성에 적응 시공까지 합쳐서 룰(Rule)이 없는 현장이 도처에 산재하여 있다.

이러한 의식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한 양질의 건축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많은 시행착오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변화의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 3.2 시공회사의 책임의식

사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국민들의 소득이 6천불을 넘으면 모든 삶의 욕구가 양(量)보다 질(質)을 추구한다고 한다. 96년 통계에 의하면 개인 소득만발 시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 국민들은 그 어려운 빈곤을 물리치면서 오늘의 성장과 발전을 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없지 않았고, 특히 우리는 삼불(三不), 즉 많은 不正들과, 서로의 不信들과, 많은 不實현장을 목격한 증인이다.

그러한 역경과 오늘의 성장이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식을 把握한 정부도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눈을 돌리고, 서비스나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성장 발전에서 오는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고질적 부실 공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건설 환경개선 및 품질혁신을 위하여 모든 제도나 관행의 개선과 철저한 중앙 감사 등으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나, 구시대의 관행과 누적되어온 부실의 흔적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범 사회적인 부실 척결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건설의 추락된 명예는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부실 공사가 되는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공사 관련자들에게 있으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도 역시 관련자들이다.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들 중에는 최고 경영층의 의지의 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조직의 미흡, 교육

의 부족, 규정의 미준수, 자원의 부족, 시간의 부족, 전문성의 결여 등이 원인이 되어 하자 내지 총체적 부실이란 오명이 붙게 된다.

그러나 대안은 별다른 왕도가 없으며 꾸준한 품질관리와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길만이 건설미래를 보장할 뿐이다. 지난 '94년도에 한국과 일본의 건축학회 발표 논문수가 건설회사 단독 논문이 한국은 2편(학회전체의 1.6%)인데 비하여, 일본은 2,276편(일본 건축학회전체의 42.6%)으로 산학연구 활동면에서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연구와 기술개발 활동이 이토록 미약할 진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노력 없는 결과란 결국 부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는 하도급 경영자의 책임의식과 직접 공중에 투입되는 기능공의 문제인데 시공회사가 살아남기 위하여 하도급 회사는 당연히 共存 되어야 하며, 이러한 중소 하도급 업체를 성장 발전시키는 것은 시공회사의 의무이며, 동시에 함께 책임 져야 할 부분이다.

한국건설 정책 연구원에서 개최한 입찰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국토개발 연구원의 이재우 박사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밝힌 1년간에 적발된 460건의 불공정 거래중, 제조부문이 188건, 건설부문이 272건으로 총 제조부문 물량의 절반도 못 미치는 건설업의 규모로 볼 때 건설분야의 불공정은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시정되어야 할 유형들은 대금 미지급, 대금 지연지급, 어음 할인율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 감액, 선금급 미지급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속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으며, 더욱이 전문성 있는 전문 건설의 기술개발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전쟁터에서 소대장이 전사한다면 소대원의 사기는 어떻게 될 것이며 소대원에게 보급이 차단되거나 사기가 떨어지면 勝戰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현장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하도급자가

의욕을 잃든가 출혈중 인데 기능공들이 무엇을 믿고 그네들을 따르고 양질의 공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시공회사는 등록된 하도급자를 종속의 관계가 아닌 공존의 관계로, 하도급자의 성장이 곧 원청회사의 발전임을 인식하여 경영자들이 부실 체결의 단호한 의지를 갖고 양질의 자재, 적합한 장비, 합당한 공기, 적절한 가격이 제공되고 모든 공정에 관련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정성을 쏟을 때 부실 건축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 3.3 전문 건설업체의 문제점

다수의 전문 건설업체들은 동종업체간에 많은 경쟁과, 향후의 거래선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출혈 건적이 시작되고, 기술적 전문성보다는 노무 하청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저가 하도급의 원인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주로 원도급자의 덤핑 낙찰, 원도급자 끼리의 過當 경쟁이 하도급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격문제는 결국 품질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며, 하도급의 불공정이 없어야 원청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풀어 나가지 않으면 건설의 신뢰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작은 바늘구멍 하나가 독을 무너뜨린다면, 구멍을 만든 장본인인 전문 건설업체가 그 재난을 막을 각오를 해야 하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하도급 업체가 안고 있는 기능공 문제인데, 가장 밑바닥에서 품질을 좌우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堡壘)가 기능공이다. 이 기능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건축의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 없으며, 전문 기능공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때만이 이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

연간 백만이 넘는 취업 기능공 중에서 약 40%가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인근의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무슨 전문성과 책임감을 기대 할 수 있겠는가.

지난 94년 3월 12일 대한 건축학회 주관 “21세기를 향한 건축계의 방향 모색”이란 좌담회에서도 중앙대학교의 신현식 교수를 위시한 일부 교수들도 부실 시공의 여러 가지 원인중에서 “...기능공의 워크맨십(Workmanship)이 좋지 않은 것”이 부실 공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기능공 문제를 건설정책 차원에서 전문 직업인으로 교육하고, 건설의 한 가족으로 육성하고, 기능 경력의 관리, 보험 문제, 우수 기능인에 대한 처우 등을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의견이 정부 및 행정쇄신 위원회에서도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장을 감안하면 의식이나 제도의 개혁은 빨리 정착될 수록 이 나라의 건축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

### 3.4 입찰제도와 발주관행

건설업을 사전에서는 “도목, 건축에 관한 공사를 도급 받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영업 과정 중에는 건설경영 전반의 활동이 수반 될 것인데, 모든 재생산 과정의 특성상 위험의 부담, 인력, 장비, 기술의 보완, 규모에 따라서 하도급이 불가피 하며, 현장시공을 직접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의 능력 및 기술이 시공의 최종적인 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적절한 계약이 우선 과제이다. 적절한 계약을 유도하고 덤핑 입찰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95년 7월부터 부대 입찰제도를 채택하여 공공 공사의 입찰에 적용하고 있다.

부대 입찰제란 건설업체가 원도급 입찰 전에 미리 하도급을 받으려는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공사 종류별, 하도급별, 금액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제도인데, 원도급자의 견적시에 견적의 참여와 사전에 가격의 調律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입찰

시에는 하도급 계획서가 첨부된 입찰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에 맺어지는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 계약서상에 하수급자와 하도급 금액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도급 계획서와 달리 계약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하여 둘 것은 공공 발주 공사에 국한된 운영이며, 백억원 이상의 제한된 공종이므로 領域을 확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입찰에 따른 운영 과정에는 어떠한 부정이나 관행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3.5. 설계의 질적인 문제

공공 공사의 감사 실적 자료('86.1.1-'93.6.30)의 분석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유형별 부실 요인이 설계의 부적정이 40.9%, 부당시공이 25.8%, 설계 변경 등 시공관리의 부적정이 7.7%, 부당한 계약이 7.8%로 지상에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대한 건축학회의 “구조 안전진단 건물의 보강과 건물기능에 관한 분석연구”(92년 7월)의 자료에 의하면 건축물 구조체의 하자 원인별 분석에서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이 57.4% 차지하는 바, 이것은 지반조사의 미비로 인한 구조 해석의 오류나 하중적용의 불합리를 지적하고 있으며,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는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시방서의 부족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공에 관한 사항으로는 재료의 강도가 부족한 것이 1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인식을 바꾸어 놓아야 할 것은 설계라고 하는 서비스 영역의 이 업무는 대체적으로 결합이 없는 “디자인” 분야로 인식하고 있지만 부실이나 하자라고 하는 건축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설계라고 하는 용역업무는 광범위한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공학 분야와 창작 예술의 영역

이 결합된 하나의 저작 행위인 바, 발주자나 사용자 모두가 문화 창조라는 기대감에 부응하여 그만큼의 책임과 동시에 명예도 따르는 분야이다.

필자가 언급하고 있는 좋은 작품이란 품질 높은 설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서 볼 때 그나마 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진 일부의 건축물들은 외국용역의 설계나 기술로 지어 졌거나, 또는 핵심 기술이나 소프트한 부분들이 외국의 용역에 의존했다는 것을 일부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63빌딩, 여의도 럭키 트윈타워, 무역센터, 국제 빌딩, 롯데 월드, 교보빌딩을 위시하여 대전 엑스포의 일부 전시관, 최근 준공한 포철의 서울 사옥 등이 직간접으로 해외 용역에 의존하였는 바, 국내의 설계 용역측에서는 실시설계 업무에 종사하거나 인허가 업무에 참여한 경우가 허다하였고, 건축물의 전체적 구조, 의장 등을 설계하는 아이디어는 해외용역에 의존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국내 용역업소의 능력은 부재인가.

필자의 소견으로 본다면 능력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다고 본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에서 법으로 보장받는 인허가나, 호구지책의 일환으로 적당히 납품도면의 요식만 갖추면 된다는 관행적 용역이 아니라, 프로 정신을 갖는 직업 의식과 오직 명예와 불멸의 작품을 남긴다는 정신으로 설계하고 감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事後의 많은 事例들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노력에 비교적 인색하였던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용역은 그 시대의 문화창조의 中樞적인 역할을 하는 길잡이 이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이 건축문화 창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나설 때, 건축의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3.6 감리정책과 육성

우리 나라의 감리제도는 '87년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된 이래, 본격적으로 90년 1월부터 시공감리가 시행되다가 '94년 1월부터 전면 책임 감리제도가 도입되어 '97년 1월 현재 총괄 360개의 감리전문회사가 등록되어, 세부적으로 종합감리가 88개 업소, 토목감리가 61개 업소, 건축감리가 206개 업소, 설비가 5개소 등록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감리가 주재하는 현장은 대부분 일반 감리임에도 책임감리를 맡은 현장인양,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운용되거나 실무에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과도기적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책임감리 적용은 공공 공사에서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토목, 건축공사 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평방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또는 기타 공사로서,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 적용을 받으며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을 대행하는 감리를 말한다.

민간공사는 일반 감리로 통칭하며, 연면적 5천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현장에 상주나 비상주로 구분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적용을 받는 감리가 있고, 20세대 이상인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주택 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세대규모에 따라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이 사안에 따라 준용되고 있다.

이러한 세분된 감리 운영의 문제점은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여 나가겠지만 법의 오류나, 간혹 무책임한 언론의 보도로 감리원은 필요 이상의 부담감 내지 책임의식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어 감리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으므로 부족한 감리원의 확보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가장 큰 벌칙은 종전에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칙이 2배 이상 강화되었다.

현재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건설불신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건설 信賴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감리원의 권한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모든 책임은 事案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것은 감리원이 부실 건축의 최대 보루는 아니기 때문이며, 감리 풍토가 정착되고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감리원도 스스로 자기의 자질을 검증하여 지식, 경험, 통솔력을 길러 건축문화 창조에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지와 공인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감리란 명예와 권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프로 페셔널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대열에 합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 건축문화의 遺産을 위하여

「不實」이란 낱말이 “튼튼하지 못함, 믿음성이 적음, 일에 성실하지 못함” 등으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책임이 종사한 기능공에게만 책임이 있겠는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좋은 토양이 있어야 할 것이고, 박토이면 거름을 주고, 가물면 물을 주고, 김을 메는 등, 총체적 관리와 정성을 들여야 할 것이다.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하여 그런 노력이 필요할 진데, 건축 문화의 창조란 창작 과정과 재생산 과정에서 볼 때 인적, 물적, 시간적 관리나 노력이 더욱 필요 할 것이다.

건설하지 못하여 부실한 건축이 되었다면 농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인 바, 이것은 삶을 위한 용기를 만드는 일, 즉 사람이 거처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사의 충실한 열매 즉 이 시대에 비친 우리의 자화상에 “보다 나은 건축문화를 창조한 선조”로 남기 위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실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과감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공회사의 책임의식과 개선, 전문 건설업체의 문제점과 육성, 입찰제도와 발주관행의 개선, 설계용역의 질적 향상, 감리의 정착과 육성,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의 잠재적 의식의 전환 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건설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며, WTO가입으로 인한 금년의 시장개방과 OECD 회원국으로써 선진 의식의 전환이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참고자료

1. 建 築: “건축시공분야의 전망과 과제,” 대한건축학회지, (Vol.38, No.4) 1994, 4.
2.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신원문화사, 1996, 6.
3. 박칠림: “학술·예술·기술의 학회를 그리며,” 대한건축학회지(Vol. 38, No.8) 1994, 8.
4. 이재우: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입찰제도의 개선방

안,” 건설정책연구원 발행, 1994, 12.

5. 송 자: “진정한 삶을 사랑한다면...,” 동아일보, 1996, 9, 1.
6. 파빌로원저: “티베리나 섬,” 로마지, 1995, 8.
7. 동아일보: “천년 정신으로 우리 역사 남겨야” 1996, 12. 30. (25면).
8. 감사원: “새롭게 시작하는 건설,” 제 4 판, 1995, 5.
9. 건설감리: “감리통계자료” 제3권 제1호, (통권 20호), 1997. 1.
10. 이학영: “건설인의 의식과 감리방향,” 한국건설감리협회지, 제2권 제5호, 1996, 6.
11. 이학영: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감리방향”, 한국 기술사회지, Vol. 29, No. 2, 1996, 4.
12. 이학영: “보다 나은 건축을 위하여”, 대한 건축학회지, 제40권 제10호, 1996, 10.

(原稿接受日 1997. 1. 15)